

불꽃튀는 정보와 우정을 위하여

《제65차 IFLA방콕총회 참관기》

엄 갑 도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

1. IFLA와 총회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은 도서관 활동 전반에 걸친 국제적인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 토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1927년에 설립되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현재 회원으로 140여개국 1600이상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다.

조직구성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하는 이사회(Executive Board)와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Headquarters)아래,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단(Professional Board)이 5개의 핵심 프로그램팀(Core Programme) 및 33개의 섹션(Section), 12개의 라운드테이블

(Round Table)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총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가하며 새로운 도서관·정보학의 연구논문들을 발표하여 그 증진을 꾀하고, 또 도서관 상호 관심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도 하며 회원간의 친목과 우정을 다지고 있다. 향후 총회 개최지로는 2000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2001년에 미국의 보스턴, 2002년에 영국의 글래스고우, 2003년에는 독일의 베를린으로 결정되어 있다. 금년은 제65차로 8월20일(금)부터 8월28일(토)까지 9일간 태국 방콕 BITEC(Bangkok International Trade And Exhibition Centre)에서「도서관, 보다 나은 세상으로 열린 문(Libraries as Gateways to an Enlightened World)」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2. IFLA총회 참가단 편성과 출국

도서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은 이 IFLA총회에 참관해 보고 싶은 것은 인자상정일 것이다.

나도 도서관에 근무한지 어느덧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내년이면 정년 퇴직하게 된다. 정년퇴직 전에 한번 참관해 보았으면 하는 욕망이 가끔씩 가슴에 물결쳐 왔으나 처해져 있는 환경을 생각하니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잡는 허황된 꿈일 뿐이었다. 그러나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 정말 예기치 않았던 행운이 내게 떨어졌다. 6월18일 공공도서관협의회로부터 IFLA총회 참가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로부터 IFLA총회 참가자 간담회 통지를 받고 7월22일 그 회의에 참석하여 참가단편성, 참가일정, 참가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특히 금년은 우리 나라가 2004년 IFLA총회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방콕총회 폐회식(8.27. 금요일)에서 그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였다. A코스는 이 유치활동과 관련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B코스는 일반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B코스로 배정되어 있었다. A코스는 8월22일 출발해서 8월28일 귀국하고 B코스는 8월22일 출발하여 8월30일 귀국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참가단은 30여명이 넘고 있었다.

나는 1991년 동남아 해외연수시 태국을 잠깐 관광한 적이 있다. 태국의 파타야에서 1박, 방콕에서 2박을 하면서 「미소의 나라, 미인의 나라, 관광천국의 나라」인 태국에 대한 연민이 가

슴 한구석에 남아 태국 본연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찾아와야겠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끼면서 떠나온 것이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올랐다. 태국은 그 동안 과연 어떻게 변하였을까. 가슴 설레게 했다.

이렇게 하여 IFLA총회 참가자로의 모든 수속을 끝내고 8월22일 김포공항에 모인 우리 참가단은 싱가포르항공 SQ879기에 탑승하여 13:00경 방콕으로 날았다.

마침 연세대학교 한상완 교수님과 동석이 되어 교수님의 IFLA에 대한 견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IFLA 유치에 대한 어려움과 전략, 전망 등에 관하여 좋은 말씀을 들려주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방콕 돈 무왕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을 때는 18:00경이었다. 곧 우리들의 숙소인 그랜드호텔(Grann Hotel)로 왔다.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까지 오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8년 전 황무지였던 땅에는 빌딩이 숲을 이루었고, 고가도로가 연이어 있고 닭장 같은 빈촌 마을들은 깨끗하게 사라졌다.

자동차 전시장을 방불케 하던 각종 이상한 차량들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 8년의 세월은 많은 변화를 태국에도 가져 왔었다. 22층의 숙소에서 휘황찬란한 방콕의 시내를 굽어보면서 조용히 태국에서의 첫날밤을 맞이했다.

3. 개회식(Opening Session)

개회식은 8월23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고 오후 3시30분까지 대회장에 입장해야 했다. 오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시내관광이 계획되었다. 07:30 전용버스에 탑승한 우리 참가단은 우선 차오프라야강변 선착장(River

city)으로 가 유람선에 승선했다. 태국 가이드 듀이의 유창한 한국말은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새벽사원은 보수중이라 올라가 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면서 설명만을 들었다. 수상시장의 모습, 그리고 불교사원, 수상 빈민촌의 모습, 빌딩 등을 보면서 8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껴졌다. 다만 수상 빈민촌의 수가 줄고 빌딩 수가 좀더 늘어났을 뿐 흙탕물은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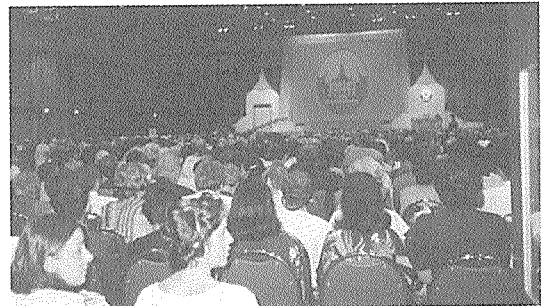
차오프라야강변 구경을 대강 끝내고 다음은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을 관람했다. 태국인들의 심장부라 말할 수 있는 이곳은 다시 보아도 옛날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환상적이고 이국적인 정취를 물씬 풍기게 했다. 높이 치솟은 궁전과 누각, 사원들은 모두 금박 잎새 자기 유리로 찬란하게 장식되어 눈이 부셨다. 8년 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그 황홀함은 조금 가졌으나 그래도 역시 훌륭하게 느껴졌다.

점심을 먹고 행사장인 BITEC에 도착하였을 때는 14:20경이었다. BITEC는 방콕 시내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지역에 있었다. BITEC는 만평이 훨씬 넘어 보이는 넓은 주차장과 파란 잔디밭 등 넓은 공간에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건축되어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 입구에 들어서니 벌써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등록대에 가서 '99 IFLA 조직위원회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참가등록증(Confirmation)을 제출하니 태국인 특유의 미소를 보내면서 관계자들이 검은 가방 하나씩을 찾아 내주었다. 그 안에는 명찰, 발표논문, CD-ROM, 논문 교환쿠폰, 초청장 등 일체가 들어 있었다. 우리 나라 참가단들은 17:30 전용버스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대회장에 들어오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취향

대로 자유롭게 행동했다. 그러나 우리 공공도서관 참가자 5명은 첫날부터 행동을 같이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도 생소한 시설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구경하다 개회식장을 찾아오니 대기실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15:30되자 대회장문은 열렸고 차례차례 자리를 잡아 나갔다. 금방 그 넓은 홀이 많은 참가자들로 꽉 채워졌다.



〈개회식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

대회장 안은 140여개국 20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세계 각국의 인종 전시장 같았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밝은 표정으로 밝은 미소를 보내고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러한 큰 세계대회에 참석해 보기 때문에 야릇한 흥분과 황홀감에 잠깐 젖어 보기도 했다.

이윽고 사회자가 나와 대회 진행의 요령을 간략히 말하고 특히 태국의 공주가 참석하기 때문에 입장할 때 모두 일어서서 박수로 환영해 달라고 하였다. 영어 실력이 짧은 나로서는 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시간이 되자 개회식은 시작되었다. Ross Shimmon 사무총장의 경위보고와 Pichit Rattakul 방콕시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이어서 IFLA 회장 크리스틴 드송(Christine Deschamps)의 개회사가 있었다. Christine Deschamps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IFLA를 이끌고 오기까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2000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IFLA의 기술적인 발전과 진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결정들이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법규의 개정 절차를 거쳐서 다음 천년을 효율적으로 보강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우리의 일은 10배로 증가될 것이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핵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 천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좌우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태국 공주의 축사가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태국 왕실의 권위와 국민들의 국왕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태국공주가 입장하여 자리를 옮겨 축사가 끝나고 퇴장할 때까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전 회원이 여러 차례 기립하고 박수를 쳤다. 태국 왕실의 권위와 국왕에 대한 존경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화장 분위기는 매우 부드러웠다. 때때로 좌중을 한 바탕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하여 우리 나라 엄숙한 식장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공식 행사가 끝나는가 했는데 곧이어 태국 민속춤과 노래 등의 공연이 있었다. 태국을 알리는 문화·예술행사였다.

이렇게 해서 흥분으로 들떴던 개회식을 마치고 나오니 17:00가 넘고 있었다.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우리 참가단은 약속된대로 17:30 주차장에 모여 함께 전용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4. 각종 논문발표 참관

둘째날 8월24일은 하루 종일 각종 연구발표가 가장 많이 있는 날이었다. 전용버스로 함께 BITEC에 도착한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취향대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방을 찾아가고 있었다. 우리 공공도서관 참가자 5명은 함께 모여서 방을 찾아 다녔다.

오늘의 프로그램 목록을 살펴보니「Library service to Multicultural populations joint with management and marketing」에 대한 발표가 좋을 것 같다고 합의가 되어 그 방을 찾아갔으나 벌써 꽉차 있어 들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방 저방 몇 곳을 기웃거리다 한방으로 들어가니 마침 원탁형 테이블에 앉아서 편하게 설명을 듣고 있었다. 마침 빈자리가 있어 우리 일행이 앉으니 옆에는 차와 다과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 차와 다과를 가져다 먹으면서 참으로 편하게 좋은 논문발표를 들었다. 발표된 논문은 「OCLC office of Research and The CORC project」였다. 미국인 Taylor Surface가 발표를 했다.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와 CORC(Coperative Online Resources Catalog)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도서관의 디지털화를 위한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침 영어 실력이 우수한 국제대학원 정혜경 실장이 동석하여 중간중간 정실장의 보충설명을 들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배웠다. 11:30분 경에 본 강의는 완료되었고 그를 우리 테이블에 초청하여 기념 촬영도 했다.

오후에는 우리 나라 동덕여자대학교 김성희 교수의 발표를 참관기로 하고 지하에 있는 식당에 가서 태국식 국수를 한 그릇 사먹었다. 처음 먹어 보는 태국의 향토음식이라 호기심이 컸

다. 값은 우리 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로 비싸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13:00경에 Grand Hall 203호를 찾아오니 「Availability of information to LIS curriculum developers and policy makers and the status of LIS education system : the case of an information poor country」라는 제목으로 스리랑카의 콜롬보대학 교수가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다.

곧이어 일본 시즈오카 대학의 히로야 다케쿠지와 쓰루가다이 대학의 우리 나라 김용원씨가 공동 연구한 「Current issues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ession and its education in Japan」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동덕여자대학교 김성희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김교수가 발표할 무렵에는 우리 나라 참가자 대부분이 동석하고 있었다. 김교수의 발표제목은 「The roles of knowledge professionals for knowledge management」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21C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지식사회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식의 정의 및 지식관리에 대해 살펴보고 지식관리 시스템의 단계적 절차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본 논문은 효율적인 지식관리를 위해 이용자, 지식관리자, 지식관리기술 전문가가 하나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관리자로서 사서의 역할 변화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였다. 그 많은 발표 논문, 워크숍 테이블라운지 등에서 오직 김교수님의 논문 한편

만이 발표되고 있음에 대하여 국력의 열세를 아니 느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못하는 나라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금은 피인다.

그 외에도 각종 워크숍과 분과회 발표회가 계속 이어져 있었다. 나는 이번 IFLA총회에서 특별히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보다는 처음 참가해 보는 국제 대회라 무엇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구경하면서 배우기로 했다. 이것저것 많이 보는 것이 많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쁘게 쏘다녔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떠나올 때 정간실 정미경 사서가 가급적 자료를 많이 얻어오라는 부탁도 있고 하여 이것저것 닦치는 대로 자료수집에 몰두했다.

5. 각종 부대행사

○ 도서관 견학

8월 25일과 26일은 도서관 견학이 계획되어 있었다. 방문할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13개 도서관을 선정하여 놓고 있었다. 미리 자기가 가고 싶은 도서관 방문을 신청하여 도서관 방문 카드를 받아야 했다. 우리팀은 공공도서관을 신청하였더니 Lumpini공공도서관의 카드를 받았다.

도서관 방문 카드에는 8월25일 12:00, 15번 버스를 타도록 설명되어 있고 버스를 탈때 꼭 이 카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11:50경에 BITEC주차장에 오니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버스를 찾아 탑승하고 있었다. 이 버스는 12:00에 BITEC를 출발하여 16:30에 출발장소로 돌아오게 계획되어 있었다.

우리팀도 15번 버스를 찾아 탑승하니 각국의 공공도서관 근무자들만 모여 웬지 반가움이 더했다. 내 옆자리에는 영국의 런던 근교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젊은 여사서가 자리를 함께 했다.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롬피니도서관은 방콕 시내에 있는 롬피니 공원 안에 있었다. 롬피니공원은 방콕에서 제일 큰 공원으로 커다란 호수도 있고 울창한 숲, 벤치 등도 있어 방콕시민들의 심신을 풀기에 적절한 공간이었다.

도서관은 붉은 지붕의 아담한 단층건물이었다. 30여명의 국제손님을 맞이한 도서관측은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고 브리핑을 해주었다. 1956년에 문을 연 오래된 도서관이었다. 직원은 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아동실은 10여평일까? 열람실도 매우 좁았다. 아직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개가식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 버스를 2대나 운영하고 있었다. 오전 8:30 문을 열고 오후 8:00 문을 닫고 월요일마다 휴관하고 있었다.

태국의 공공도서관 운영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방콕시청이 운영하는 방콕 시내 공공도서관이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교육부가 운영한다고 한다. 전체 공공도서관 수는 801개나 된다고 한다.

나중에 대학도서관, 국립도서관, 기타 도서관들을 방문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서관 수준이 별로 떨어지지 않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도 도서관의 격차가 매우 심한 것과 같이 태국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

○ 전시관 참관

8월23일부터 1층 전시관에는 각종 도서관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세계 200여개 유수업체에서 사무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신기술 제품 등을 출품하여 전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방콕에서의 전시장은 다른 나라에서 보다 전시관 시설이 좁아서 그 규모가 1/2 수준이라고 한다. 간행물, 전산기기, 사무기기 등 모두가 훌륭해 보이고 욕심이 날 뿐이었다.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이야말로 세계적 수준인 것이다.

한국 쓰리 엠(3M) 주식회사에서 도서분실 방지시스템(Book Detection System) 자동 대출시스템, 감응재생기, 감응테이프부착기, 컴퓨터보안기 등 우수한 제품을 전시해 놓고 홍보에 전력하고 있어 기분이 좋았다. 또 외국 학술논문 잡지등 연속간행물 대행업체인 EBSCO 한국지사에서도 나와 있어 반가웠다. 항상 전시관에 올 때마다 탐나는 좋은 기구 제품들을 보면서 예산이 따라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IFLA총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 관람을 위하여 들끓고 있었다. 이 전시관은 8월26일까지 전시되었는데 시간 있을 때마다 들르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구경했다.

○ 관광

외국에서 장기간 치러지는 행사에서 관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왕 외국에 비싼 경비를 들여와서 대회에 참석하였을 때는 하나라도 더 구경하고 더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 문화와 예술을 더욱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본전을 뽑는다고 할까? 아무튼 IFLA 본부에서도 많은 관광코스를 수집해 놓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가장 실비로 좋은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 참가단은 그런 정보에 어두워 우리 스스로 여행사와 협의하여 관광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8월26일은 실제적인 주제 발표들은 대부분 끝나고 오후에는 어제 도서관 방문을 못한 팀들이 도서관 방문을 하는 일정이 잡혀 있어 우리 공공도서관 팀은 관광을 계획했다.

방콕 남서쪽 약 80km 떨어져 있는 담논 사두악(Damnoen Saduak) 수상시장을 가이드는 먼저 안내했다. 렉시롬(Lek Silom)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담논사두악 수상시장까지 꽤 긴 거리의 좁은 강변의 수상집들과 풍경을 물살을 헤치면서 구경했다. 신선한 야채, 과일, 일용품 등을 실은 삼판이 담논사두악 운하를 비좁다는 듯이 오르내리고 많은 물품들이 쌓여 있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았다. 또 수로 위에 서있는 집들과 운하를 따라서 있는 오래된 타이 식의 집들도 경이로운 눈으로 보았다.

다음은 콰이강의 다리를 보러 가는 도중에 칸차나부리(Kanchanaburi)의 제스전쟁박물관(Jeath war Museum)을 구경하고 그 박물관 바로 밑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콰이강의 다리까지 아름다운 콰이강변 절경을 구경했다.

영화로 유명해진 콰이강의 다리는 깨끗하게 복원되어 평화로워 보였다. 지금은 훌륭한 관광지로 변하여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연합군 공동묘지까지 구경했다.

다음 8월27일 폐회식이 있는 오전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라 우리 참가단은 오전에 사파리월드(Safari World)관광을 갔다. 200에이커의 방대한 사파리월드는 육상동물원

과 수중동물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그 방대한 넓은 지역을 차를 타고 돌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기린, 뿔소, 검은소, 호랑이, 사자, 반달곰 등 많은 동물들을 구경했다. 물개쇼와 원숭이 권투쇼, 스트롱맨 쇼도 구경했다.

2m가량의 큰 잉어 같은 고기, 폭이 1m가 넘어 보이는 가오리 등도 보았다. 관광유치를 위해 참으로 많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폐회식을 끝낸 다음날 8월28일 흥가분한 마음으로 태국을 떠날 준비(가방 등 짐을 모두 챙겨 버스에 신고)를 하고 관광의 길에 올랐다.

원래는 로즈가든을 관광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앙보란(Muang Boran)으로 바뀌었다. 무앙보란은 방콕의 남동쪽 약 30km지점의 사무트프라칸에 위치하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니 「The Ancient city」란 간판이 붙어 있었다.

1km²의 넓은 부지에 태국 국토 형태의 축소판 모양으로 만들어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야외 박물관이었다. 수코타이나와 아유타야 등의 왕궁이나 사원의 축소 모형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연못주위에 세워진 수상가옥을 둘러싼 목재로 된 보도는 발을 내딛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입구에 있는 홍예다리가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인데 이 홍예다리를 건너면 치앙마이 아유타안 수코타이 방콕으로 이어지는, 각 왕조가 번성했던 태국 역사의 축소판으로, 태국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앙보란 관광을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고 차이나타운을 잠깐 구경하고 그 유명하다는 차투락 주말시장까지 구경했다. 풍부한 물자를 느낄 수 있었으나 별로 싸다는 기분은 느낄 수 없었

다. 역겨운 냄새와 더위가 고통스러워 나는 바로 빠져 나왔다.

○2006년 IFLA 총회유치와 한국도서관인 간담회
8월26일 19:00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도서관인의 밤” 행사가 그랜드호텔 4층 식당에서 만찬을 겸하여 개최되었다.

한국도서관협회 이두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 회장 박계홍님, 윤희창 국립중앙도서관장님, 외빈으로 김국진 태국대사님, 진경덕 공사님 그리고 일본도서관협회 쿠리하라 이사장님, 고이쓰미씨, 일본 쓰루가다이 대학에 계시는 김용원님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특히 이 간담회에서의 주요 대화의 내용은 2006년 IFLA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게 되었고 내일 폐회식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1년여 동안 한국도서관협회(회장·이두영 교수)가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집중 노력하여 우여곡절끝에 이런 성과를 얻게 된 자축도 겸한 모임이었다.

지금은 어느 나라나 규모가 큰 국제대회는 행사 후에 나타나는 반대급부적인 효과가 크므로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게 아니라고 하였다.

일본도서관협회 쿠리하라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IFLA 총회 유치를 축하해주면서 2002년 월드컵을 한국과 일본 공동으로 개최하듯이 이 IFLA 총회시에도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을 하여 인상적이었다.

내일 폐회식때 2006년 IFLA 총회유치 발표가 있을 때 힘차게 환호할 것을 서로 약속하면서 화기에 넘치는 모임을 마쳤다.



〈 한국 도서관인의 밤 ” 행사모습, 우측에서 세번째가 필자 〉

6. 폐회식

8월27일 오전은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폐회식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오전에 우리 참가단은 사파리월드(Safari World) 관광을 즐겼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경 BITEC 회의장으로 왔다.

그렇게 북적대던 각 회의장은 썰렁한 느낌을 주고 있고 각종 부대시설들도 철수를 서두르고 있었다.

일찍 폐회식장으로 찾아오니 아직 자리는 많이 비어 있었다. 폐회시간이 가까워 오자 그렇게 넓은 회의장 좌석이 어느덧 메워져가고 있었다. 어느 대회든 대체로 폐회식장은 썰렁하게 마련인데 천 여석의 좌석이 빈틈없이 메워져가고 모두들 밝고 환한 얼굴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시간이 되자 자연스럽게 자리는 정돈되고 먼저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종합보고가 있고 그 동안 대회 행사에 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무대위 대형화면에는 대회 기간 동안의 중요한 장면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참가자들도 감사의 박수를 치기도 했다.

2000년 대회 개최지인 예루살렘의 대표가 초

청인사와 함께 대형화면에 이스라엘을 소개했다. 2001년 개최지인 미국에서도 소개가 있었다.

곧이어 2004년 대회개최지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결정되었음을 공표하자 아르헨티나 참가자들은 환호성과 함께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팜플렛과 뺏지를 대회장에 뿌리면서 즐거워했다.

2005년 발표를 미룬 채 2006년 대회개최지가 한국 서울로 발표되자 미리 준비한 태극부채를 흔들면서 우리 참가자들도 크게 환호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호응을 하여 주어 가슴 뿌듯했다. 이 환호의 역사적 현장에 서게 된 것을 또한 영광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태극 부채를 참가회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매우 열광하는 그들에게 답례가 되어 기뻐다. 그러나 워낙 폐회식 참가단 회원이 예상외로 많아 전원에게 하나씩 나눠주지 못하게 되어 미안했다.

약 2시간에 걸친 폐회식은 조금도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 환호와 재치, 즐거운 기분으로 이렇게 멋진 폐회식을 질서있게 끝내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송별인사를 끝으로 흥분과 감동으로 들떠 있던 일주일간의 생활을 아쉬움으로 남긴 채 대회장을 떠나야 했다.

밖으로 나오니 각국의 회원들이 서로 아쉬움을 갖고 이별의 인사들을 나누고 있었다.

7. 참관기를 끝내면서

약 일주일간에 걸친 IFLA방콕총회 참관기 내 나름대로 간략히 써봤다. 그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그래서 소감의 일단을

간략하게 피력코자 한다.

첫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방콕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IFLA에 대한 막연한 개념을 머리 속에 가지고 있었을 뿐 깊은 연구와 인식이 없었다. 처음 참석해 보는 국제적인 대 행사라 막연한 호기심과 흥분이 나를 휩싸고 있었을 뿐이었다.

방콕 BITEC 총회장 등록대에 줄을 서면서부터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 도서관 관계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친애적인 분위기를 느끼면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둘째, 연구 발표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소감은 연구한 논문 발표가 끝났을 때 방청객들의 진지한 질문과 응답 그리고 토론의 자세를 보면서 한결같이 도서관을 아끼고 사랑하며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셋째,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 띤 모습, 환한 모습들이 친근감을 느끼게 하여 다양한 많은 외국인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 특히 70이 넘는 노부부들이 반가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다. 오산시립도서관 강승도 관장은 쾌활하고 불임성이 좋아 많은 외국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가교역할을 했다.

넷째, 이번 IFLA총회 폐회식에서 기대했던 2004년 서울 IFLA총회 개최의 꿈이 아르헨티나로 넘어갔으나 관계관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6년에 개최기로 결정된 것에 자축하면서 이를 계기로 정책 당국에서 도서관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섯째, 그 동안 많이 얻어온 자료와 배우고 느낀 바를 잘 정리하여 스스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참된 자기 연수로 승화시켜 나아가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아쉬운대로 빈약한 참관기를 끝낸다.